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성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이 콘텐츠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기사를 카드뉴스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원문: How an Olympic medal for women's rugby helped efforts to end gender-based violence in the Pacific Islands, 2024.07.26.)

피지 여자 럭비팀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섬나라 여성팀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Get into Rugby PLUS

프로그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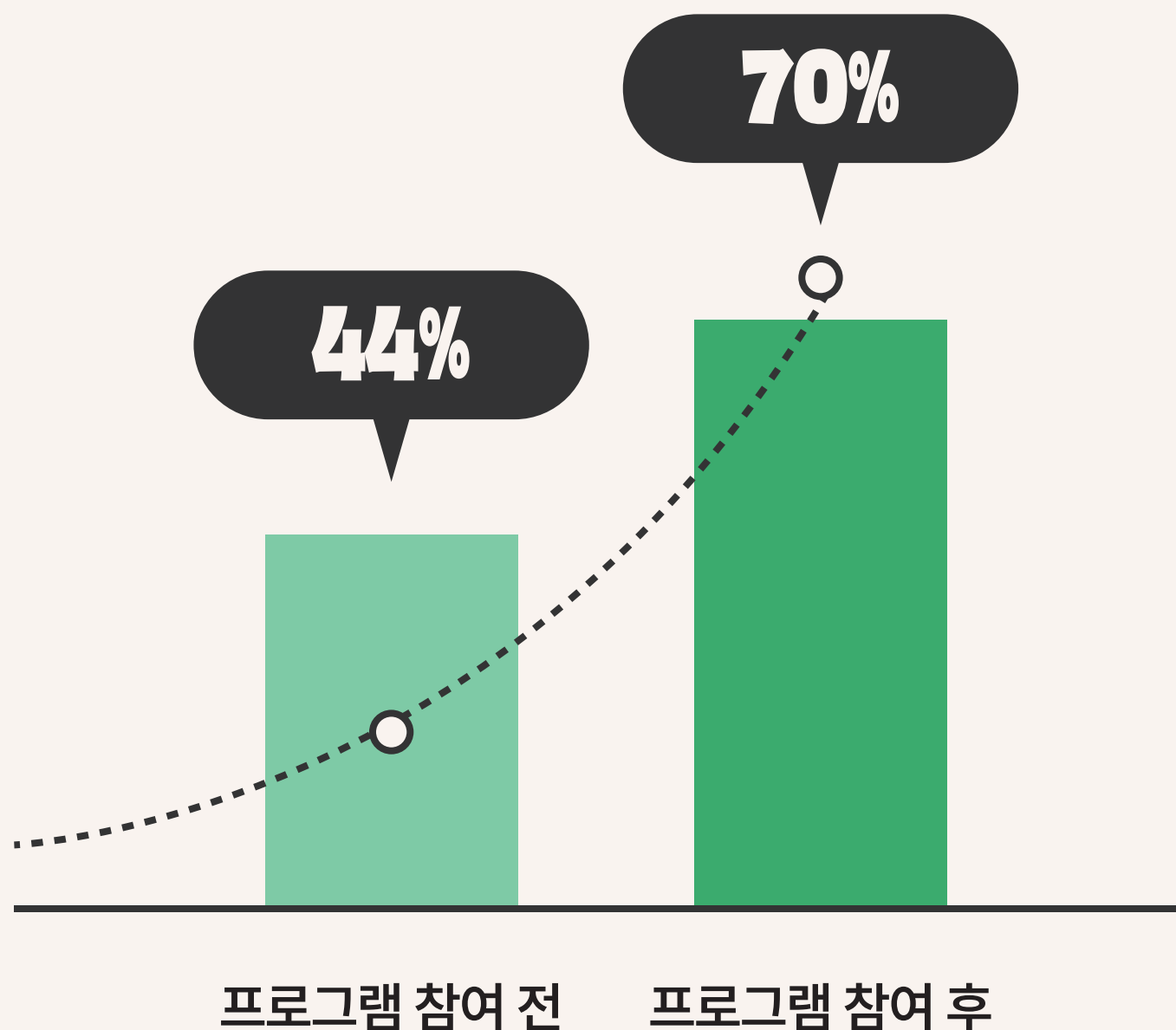


남녀 어린이의 **럭비 참여를 지원하며**
성평등을 실현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참가자들은 럭비 활동에 참여하며 동시에
성평등에 관한 수업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결과

**"성희롱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 응답자가
44%에서 70%로 증가했습니다.**



92.2%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학생의 92.2%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리더”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70%

또한 남녀 참가자의 70%가
소녀와 소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피지와 사모아의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 럭비 리더십 프로그램과
오세아니아 여성 럭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럭비 매니저

타흐라니 울리나 카우바드라는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은 성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지의 럭비 국가대표 주장인 루실라 나가사우는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여자 어린이들이
럭비를 하고,
여성들이 코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럭비 활동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피지의 럭비 국가대표 주장, 루실라 나가사우

”

우리나라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제 13조2항 여학생 체육활동활성화 지원(2017.2.4.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학생 자전거 교육,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스포츠 행복지수 측정, 여학생 SNS 스포츠 기자단 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6 여성가족부 「학교체육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르면,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교과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응원'에 참여함으로써 관람 스포츠 문화 조성
- 여학생 체육활동 특화프로그램 개설

국내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학생 체육활동의 참여 지원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양성평등 체
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더 많은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
발굴이 요구됨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한 문화조성이 필요함